**마르크스를 통해 본 한국 사회**

2014120116 이진규

많은 사람들은 마르크스를 단순히 지금은 실패해 몇몇 나라에만 남아있는 공산주의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단순한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그는 한 시대를 풍미한 경제학자였고, 동시에 철학자였으며, 수많은 고뇌를 통해 지금까지도 읽히는 다양한 저작들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다. 그가 남긴 이론과 사상을 통해 현재 우리 한국을 돌아보고자 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큰 혼란속에 빠져 있다.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수치에서 알 수 있는 실업문제는 해결책이 없다.[[1]](#footnote-1) 설사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내 집마련은 멀고 먼 꿈일 뿐이다.[[2]](#footnote-2)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출산율[[3]](#footnote-3),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갑질문제들, 세대갈등과 여혐, 남혐 등으로 표현되는 성차별 문제 역시 심각하다. 위와 같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얼마 전 터진 대통령의 정치 스캔들은 국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기 충분했다. 자조적으로 한국을 비하해 부르는 일명 ‘헬조선’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희망 없는 세상속에 살아가며 절망하는 한국인들의 절규의 표현이다.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우울한 상황속에서 마르크스의 이론은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프랭크 터너는 마르크스의 노동의 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인간 본성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이 노동과 일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노동과 일로 자연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신의 본성을 만들어내며, 인간의 의식은 인간이 자연으로 형체를 빚는 과정에서 공동 작업으로 생긴다.[[4]](#footnote-4)

간단히 정리하자면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찾아야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예전 마르크스가 우려했던 것처럼 노동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은 자아 실현의 수단이 아닌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일자리를 찾을 때 자아 실현의 내용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5]](#footnote-5) 사람들은 하루하루 노동을 괴로움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고, 이는 국가 발전과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가 제시한 것처럼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공산주의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이미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역사 속에 존재하고, 가장 강력한 실패사례가 한국의 바로 위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없다. 다만 마르크스의 주장을 고려하여, 현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재산인 주거지를 마련하는 문제를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수 있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낮아진 집값으로 사람들이 쉽게 내 집 마련에 성공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재산을 갖기 위해 원치 않는 노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시간을 스스로를 찾는 여정에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노동이 아닌 현 시국에 대해서도 마르크스의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프랭크 터너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임금 노동자 계급을 두고 그려낸 그림은 여러모로 헤겔이 영웅을 그려낸 그림과 닮았다. 임금 노동자 계급은 자신이 놓인 상황을 의식하고, 새로운 사회가 가능하다고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폭력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6]](#footnote-6)

위에서 언급했던 경제, 사회 문제들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에 있어서, 대통령의 스캔들로 인해 한국 국민들은 근래 최악의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가장 낮은 지위까지 떨어져”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7]](#footnote-7) 행정부의 비리를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통한 현 상황의 해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대해 현재 국민들이 내놓은 방법은 평화로운 시위를 통한 해결이지만, 정치가들은 이러한 내용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마르크스의 주장을 일부 빌려서, 폭력을 통한 시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19혁명이나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서는, 시위의 과정속에서 분명히 폭력을 통한 투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현 시국에서도 분명히 폭력을 통한 투쟁은 답답한 상황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닌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모색해 본 글이네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한 방식과 전개가 좋습니다. 그러나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로 한국의 현실과 마르크스가 말하는 노동소외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 연결고리를 풀어내는 내용이 부족합니다. 단지 폭력을 통한 시위가 하나의 대안이라면, 이것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마르크스와 근래 한국의 폭력 시위와 투쟁은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 B -

참고 문헌

에릭 홉스봄.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까치글방, 2012). 이경일 역.

이사야 벌린. 칼 마르크스 그의 생애와 시대(미다스북스, 2001). 안규남 역.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헤이북스, 2015).

저부제. 미치광이, 루저, 찌질이 그러나 철학자(시대의창, 2016). 허유영 역.

프랭크 터너. 예일대 지성사 강의(책세상, 2016). 서상복 역.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다시 쓰는 서양 근대철학사(오월의 봄, 2012).

1. MBN뉴스 - 실업률 11년 만에 최고…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기사 인용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031843>

   (2016.10.31 접속) [↑](#footnote-ref-1)
2. 헤럴드경제 뉴스 – 내집마련, 월급 한푼 안쓰고 ‘9.4’년 걸린다 기사 인용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008000202&md=20151008102857_BL>

   (2016.10.31 접속) [↑](#footnote-ref-2)
3. 서울신문 뉴스 – 대한민국 출산율 꼴지서 4번째 기사 인용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20009015&wlog_tag3=naver>

   (2016.10.31 접속) [↑](#footnote-ref-3)
4. 프랭크 터너, *예일대 지성사 강의*(책세상, 서울, 2016), 서상복 역, 225 [↑](#footnote-ref-4)
5. # 청년 구직자, 취업 우선조건 급여 및 복리후생 꼽아 기사 인용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622000072> (2016. 10. 31. 접속) [↑](#footnote-ref-5)
6. 프랭크 터너, *예일대 지성사 강의*(책세상, 서울, 2016), 서상복 역, 233 [↑](#footnote-ref-6)
7. 프랭크 터너, *예일대 지성사 강의*(책세상, 서울, 2016), 서상복 역, 229 [↑](#footnote-ref-7)